

다문화 외국인 배려 7개국어 119신고 접수

전남소방본부, 전국 첫 응급상황 대비 매뉴얼 배포

전남소방본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소방본부는 다문화 외국인이 재난 상황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출신 국가 언어로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다문화 외국인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부서에 배포했다. 이는 전국에

서 처음으로 다문화 외국인 배려와 재난시 응급 대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 외국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처할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신고체계를 잘 알지 못해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긴급 상황시 신고 전화번호와 응급조치 요령 등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

개국어로 표기돼 있다.

한편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4만3828명으로 전체 도민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외국인 119 신고 건수는 17건(화재1, 구조1, 구급14, 민원1)으로, 다문화 외국인의 증가로 신고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거주 외

국인의 국가별 인원을 파악하여 중국(4869명), 베트남(5912명), 필리핀(1308명), 일본(783명) 등 7개 국가 언어에 대해 상황별 매뉴얼을 제작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나 민원업무의 경우 당해 기관에 신속히 연결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하고 외치곤 하는 한 대중가수는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다가 카지노 도박을 했는데, 미국 한 매체의 '억대도박을 했다'는 보도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내 선친께서는 "사람은 '4부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허부리', '발부리', '손 부리' '생식기부리'를 4부리라고 한다고 하셨다.

허를 잘못 놀리면 자기 몸에 칼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잠깐 어딘가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곳이 죽는 자리일 수도 있고, 생식기를 잘못 사용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한 늙은 남자는 골프장에서 도우미 여자의 돈부에 손길을 뻗다가 성추행으로 망신을 당했다. 군의 장교들은 휘하 여성 부하를 성폭행하고 구속당했다.

발부리와 손부리를 잘못 놀린 그 대중가수는 카지노에서 800만 원쯤을

사업은 줄줄이 망했고, 아내와 이혼을 했고, 나중에는 사기 사건에 연계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는, 한 남자가 도시 개발로 90억 원이 생겼는데, 그의 동생이 3억 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공기총으로 형님 부부를 쏘아 죽이고 자살하지 않았는가.

요즘 방위산업에 연관된 장군들이 줄줄이 돈을 챙긴 다음 그 뒷발질에 차여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 방위산업체의 대표는 은밀하게 챙긴 돈으로 인해 폐가망신살이 뻗었다.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돈에 눈이 멀면 국가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식들과 노후에 명명거리며 살 생각만 한다.

돈은 말처럼 뒷발질을 한다. 돈의 뒷발질은 치명적이다. 돈은 말처럼 뱀바질하여 달아나므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쫓아가다가 그 뒷발질에 차이는 것이다.

돈은 뒷발질 한다

땀하는데, 가수로서의 명예 실추와 체면의 구겨짐으로 볼 때, 아마 8억 혹은 8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돈은 그렇듯 모질게 뒷발질을 하는 괴물이다.

한 여자는 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딸을 줄줄이 죽였는데, 그 방법은 제조제라는 농약을 조금씩 먹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 앞으로 미리 보함을 들어 놓고, 제조제를 이용하여 그들을 천천히 죽였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간 다음 보험금 몇 억 원씩을 받아 챙겼지만, 그녀는 결국 돈의 뒷발질로 인해 죽은 것만도 못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한 남자는 로또복권 당첨으로 몇 십억 원을 보듬었는데, 그 돈의 뒷발질에 차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제일 먼저 그를 공격한 것은 사회사업자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통사정했다.

다음은 형제들이 몰려들어 도와달라고 강압했다. 견디지 못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도시로 '밤도망'을 쳤고, 호텔에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산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돈의 무게와 부피를 놓고 잣대질한다.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을 '개털'이라고 한다. 모두들 개털이 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분투한다.

돈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들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神)의 자리에 앉아 있다. 돈을 보듬은 자는 가난한 자들 지천으로 날려 있는 세상의 상층부에서 군림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돈 잘 버는 자를 양성하는 공장쯤으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돈 버는 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문학과는 축소시킨다.

최소한의 돈으로도 행복해 하며,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한사코 돈을 무진장하게 가진 부자가 되는 길만 가르친다.

내가 살아본 바로는, 돈만을 보고 쫓아가는 자는 싸라기 같은 돈을 쟁겨거나 돈의 뒷발질에 차이고 망신을 당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돈을 멀리 하는 자는 어느 날 부위 덩어리 같은 큰돈과 명예를 보듬게 되는 것이던데.

<소설가>

日 후쿠시마 방사능 4년만에 태평양 건너 캐나다서 첫 검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4년 만에 태평양을 건너가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우즈홀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유클루릿 앞바다에서 수거한 샘플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쿠시마에서 유클루릿까지의 거리는 약 7천350km다. 원전사고로 태평양에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약 4년 만에 태평양을 횡단해 북미 연안에 닿은 것이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1㎡당 1.4베크렐의 세슘-134과 5.8베크렐의 세슘-137로 이는 인체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극미량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식수용 세슘-137 허용기준은 1만 베크렐/㎡이다.

또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2배가 포함된 바다에서 사람이 매일 6시간씩 수영을 한다고 해도 차아 X선 촬영 1회로 발생하는 방사선보다 1천 배 적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소는 세슘-134의 반감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해양 샘플에서 검출된 세슘-134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7의 경우 핵실험으로도 방출돼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그 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독도 도발 ... 정부, 주일공사 불려 항의

외교부 성명 이어 이틀째 강력 대처

정부는 7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은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려 항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일본 정부가 전일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조대용 외교부 1차관이 뱃소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불려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어 이틀째 규탄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려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왜곡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뉘우쳐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점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

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진흙행위를 전담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연합뉴스

http://www.jeongeup.go.kr

2015 Jeollabukdo Sports Festival

전라북도민체육대회

2015. 5.22 금 ▶ 5.24 일 (3일간)

정읍시 종합경기장(주경기장)외 종목별 경기장

주 최 전라북도체육회 /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주 관 정읍시 / 정읍시체육협의회